

## 다시 성찬!(고전11:23-2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은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교회가 확인해주는 의식이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찬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을 왜 행해야 하는지,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찬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 '기념'이란 단어는 '회상' 또는 '기억'이란 뜻이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도 잊고, 감사도 잊고, 역사도 잊는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운다. 그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희미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꺼진 믿음에 불을 붙이며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자.

### 2.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만찬이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하나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밥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가족이라는 말이다. 밥상에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을 밥상에 초대하는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피차 소중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밥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라고 선포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자로서, 거룩한 혈연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성찬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자.

### 3.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26절)"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을 주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교회 전체가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관계전도'를 통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

### 다시 성찬!(고전11:23-26)

1. 마음 열기 -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445장, 보혈을 지나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성찬을 하지 못하다가 감격스럽게 다시 성찬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을 다시 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으며 전해야 하는데, 이웃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야기 해 봅시다.

### 4. 사역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공동체 성경읽기"와 "회복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4)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합시다.